

## 베네수엘라, 총파업사태 다소 진정국면으로

(2003. 2. 3)

2002년 12월 야권의 총파업 선언 이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음. 베네수엘라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자연맹(CTV)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세력은 2월 1일을 기해 석유부문을 제외한 금융, 교육부문에서의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카터 前 미국대통령 및 OAS(범미주기구)의 중재안 수용의사를 표명하였음.

### □ 총파업 철회의 배경

- 노동자 연맹의 금번 파업철회는 ① 장기간 계속된 파업으로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불만고조, ② 파업의 중심세력인 국영석유회사(PDVSA)근로자들의 총파업 이탈 증가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.
-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카터 前 미국대통령 및 OAS(범미주기구)의 중재안이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에 근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원을 배경으로 차베스 퇴진운동을 본격화 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판단이 배경이 되고 있음.

### □ 중재안의 내용

- 카터 등이 제시한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① 차베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실시 ② 6년 임기의 절반이 되는 2003년 8월에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등임.

- 반정부 세력은 2일 상기 중재안에 입각, 개헌실시의 전제조건인 국민청원을 위해 가두서명 작업에 돌입하였음.

□ 향후 전망- 파업이전 상황으로의 복귀에는 다소 시일 걸릴 듯

- 그러나 야권의 총파업 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사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. 우선 금번 사태의 당사자인 차베스 대통령이 노조의 파업철회 선언을 자신의 대야 강경노선의 승리로 규정, 향후 신임투표 실시 등 중재안의 실현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
- 또한 국영석유회사(PDVSA)의 조업정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유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는 3-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총파업이전의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\*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인 Fitch IBCA 및 Moody's 등은 2003년 1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석유산업 마비로 인한 단기 유동성 경색을 이유로 동국의 장기외화표시 채권등급을 각각 기존 B-와 B3에서 CCC+와 Caa1으로 하향 조정하였음.

문의처 : 책임조사역 배상욱 subae@koreaexim.go.kr